

공실 프로젝트, 6명의 국내 신진작가와 함께 역삼동 6개 층 공실을 임시 점유하는 기획전 《find and found》 개최

전시명: 《find and found》

전시 기간: 2026년 5월 15일(금)-2026년 6월 14일(일)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오후 2-8시 (월요일, 공휴일 휴무)

장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5길 24

참여작가: 권영환, 배윤재, 손배영, 이연진, 전형배와 금지수, 홍다린

기획: 이승민

프레스 데이: 2026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오후 4시

***프레스 데이에는 기획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워크스루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프닝: 2026년 5월 15일(금) 오후 5-9시

[홍보 자료 확인하기](#)

공실 프로젝트는 오는 5월 15일부터 기획전 《find and found》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실 프로젝트에서 주최하는 3회차 행사로, 권영환, 배윤재, 손배영, 이연진, 전형배와 금지수, 홍다린 총 6명(팀)의 작업을 소개한다.

이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사이의 공백 속에 잠시 멈춰선 서울 도심 곳곳의 공실을 임시 점유하며 주어진 공실의 물리적 구조와 임시적 성격을 활용해 전시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실 프로젝트가 이번에 새롭게 마주한 공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6층 건물로, 최근까지 한 임차인에 의해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공간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이번 전시는 영상, 설치, 사진, 사운드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사무실, 탕비실, 휴게실로 이용되던 공간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임시 점유하고 재정의하는 현장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제목이 시사하듯 무언가를 찾거나(find) 발견하는(found) 행위가 형성하는 시간적·개념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시자들의 출발점과 작업과정에 주목하며 일상에서 간과되던 미시적 존재와 감각을 다시금 호출한다. 영어 문법상 단순히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를 드러내는 두 개념(find, found)은 국문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인식 구조와 경험 방식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 작가 6인은 목적성이 내재한 '찾기'와 우연성에 기반한 '발견하기'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작업을 전개한다. 의도적으로 탐색에 나선 대상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한편, 우연히 마주한 사물 또는 틈새에서 생소한 해석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익숙한 구조의 재해석 및 재구성, 도심 속 무심코 지나친 잔해, 찰나의 감정, 별개 사물 간의 연결로 형성되는 임시적 환경, 그리고 장소가 시청각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6개 층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관람객은 작가들의 의도적으로 찾아내거나 우연히 발견한 장면이 교차하는 창의적 여정에 동행하게 된다.

참여 작가는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를 아우른다. 이들은 각기 고유의 시각언어를 기반으로 한 장소특정적 설치 작업을 주로 선보여왔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번 전시에서는 구작과 더불어 공실 현장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제작된 신작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공실 프로젝트의 이승민 기획자는 "공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를 통해 '공실'을 점유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특정적 설치 작업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주택과 사무 공간이 밀집한 역삼동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순간에 현대미술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작품 설명



이연진, 〈Circling (Bird eye's view)〉, 2025, 각목, 거즈, 젯소 외 혼합재료, 가변설치. Courtesy of the artist. 사진: 이현석



손배영,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6〉, 2022, 피그먼트 프린트, 42 x 28 cm. Courtesy of the artist

《find and found》는 전시장 외부에서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공실이 위치한 골목과 맞닿은 외벽에 설치된 **이연진(b. 1994)**의 장소특정적 신작 〈The monkey line - 원숭이줄〉(2026)은 건물 상단에서 하부로 길게 뻗어 나가는 거즈를 통해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 위 불안정한 점유를 시도하는 파사드 작업이다. 외벽에 직접적인 설치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작품은 주변 구조물에 의존하는 '매듭'의 방식을 취하는데,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타자에 기대어 불안정한 점거를 이어간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모비 딕』(1851)에 등장하는 '원숭이 밧줄'을 연상시키듯 건물 구조와 작가의 선(line)을 연결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도심 속 미세한 균열을 생성하는 모습이다. 이는 회화의 가변적 구조를 탐구해온 작가가 건축적 스케일로 작업을 확장하며 고정된 프레임을 벗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열린 구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실의 여러 지점에 모래로 짧은 텍스트를 남기는 방식으로 설치된 **손배영(b. 1989)**의 〈기록하지 못한 만남들의 기억〉(2026)은 1층 실내에서 관람객을 처음 맞이한다. 이는 작가가 일상 속에서 비닐봉지를 마주했을 때 즉시 실감했으나 미처 기록하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간결한 텍스트 형태로 환기하는 작업이다. 관람객은 공간 곳곳에 흩어진 문장들과 우연히 마주하며 이미 소멸된 순간들과 뒤늦게 조우하게 된다.



홍다린, 〈불안줄〉, 2025-, 가변설치. Courtesy of the artist



배윤재, 〈무언가를 향한 온전한 해석이란, 불완전한 주체와도 가깝다〉, 2025, 야광 안료, 철 반생이, UV 레진, 종이, 가변설치.

Courtesy of the artist

2층에서는 **홍다린(b. 2002)**의 〈불안줄〉(2026)이 소개된다. 2025년 〈불안줄〉 연작으로 시작되어 전시마다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가변적 형태를 띠는 작업은 작가가 학사 졸업 후 맞닥뜨린 무자비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폐자재, 밧줄, 호스, 각재를 포함한 각종 오브제와 전선을 엮어 '불안'이라는 감정적 상태를 거대한 사물로 가시화한 작품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자신과 그것들을 연결해 줄 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작가에게 '선'이 의미하는 바를 시각화한다. 이번 공실에서 소개되는 작업은 〈불안줄〉 연작

의 네 번째 시도로, 폐전선과 배관, 앵글 등을 활용하여 부피와 무게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작가는 2층과 5층에 놓인 수납장에서 <올려다보기를 거부하여 내려오기—stigma>(2024)와 <이들을 바라보는 방법>(2024)을 선보이며 기존의 사회구조에 의해 실행되는 '평등'의 개념적 모순과 그 규범 안에서 낙인찍힌 자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바닥'에서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수행하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행위'를 묘사한다.

3층에는 앞서 1층에서 소개한 **손배영(b. 1989)**의 또 다른 작품이 전시된다. 이처럼 <find and found>는 층마다 전시작들을 등장 후 재등장시키며 단일했던 서사들이 서로 교차되고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 도시 기상에 관한 노트>(2026)는 도심을 떠돌아다니던 비닐봉지가 잠시 머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계단 모서리, 담벼락 아래, 도로의 가장자리처럼 도시의 통행과 관리의 흐름에서 비껴난 장소에 남겨진 비닐봉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작업은 작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관찰 보드 형식의 설치를 통해 비닐봉지가 머문 자리의 식물, 표면의 흔적 등 도시 내의 미세한 관계와 조건을 함께 살펴본다. 한편, 같은 층에서 공실 내부와 주변에서 발견한 잔해물을 모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재구성한 **권영환**의 장소특정적 신작 <구분과 미분>(2026)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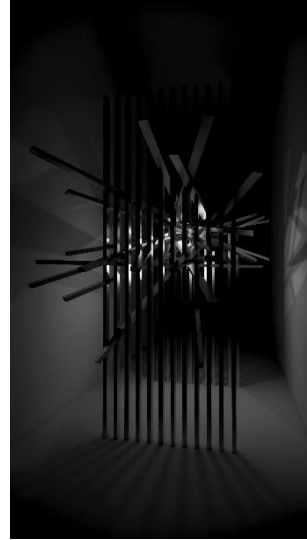
4층에 다다르면 과거 창고로 활용되던 복도의 잉여 공간을 전시장으로 전환시킨 **배윤재(b. 2001)**의 신작 <Pssssss(췌...)>(2026)를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레이저 수평기, 거울, 돋보기, 형광물질, UV 램프, 제습기와 같은 다양한 사물들을 활용하며 이 공간을 일종의 실험실 삼아 작업한다. 작가의 작업은 평소 서로 관련이 없는 사물 또는 사건 간의 연결성을 발견하거나 인식하는 현상인 '아포페니아(Apophenia)'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각종 잔해물을 재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생명력을 탐구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동일한 연작에 속한 작가의 다른 작업은 4층 곳곳에 자리한다.

같은 층 테라스 공간에는 **배윤재(b. 2001)**의 <Flüchtigkeit(일시성)>(2026)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물을 향한 빛이 어떤 조건에 의해 분산되는지에 따라 형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실내의 회절격자 필름은 햇빛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을 투과시키며, 이렇게 통과한 광선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스펙트럼으로 분해된다. 이와 병치되는 스틸 그레이팅, 녹슨 철 좌대, 유리벽돌, 얇힌 전선과 같은 도심의 사물 또는 잔해물을 활용한 설치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특정한 조건 아래 잠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임시 환경을 조성한다.

실내에 전시되는 **권영환**의 <동기화된 유령>(2026)은 전시 개최 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공실의 여러 공간을 24시간 고정된 카메라로 기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영상은 전시 기간 동안 4층에서 상영되며,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과거의 장면들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동시에 제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은 촬영 당시와 현재의 시간 흐름을 일치시키며 재생되어, 관람객이 자신의 방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어둠의 상태를 마주하도록 만든다. 이때 실제 전시장은 관람객이 오가는 반면, 화면 속 공간을 여전히 '공실'인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의 서로 다른 시간대가 병치되는 효과를 연출한다. 관객은 이렇게 임시 조성된 환경에서 단일한 현재가 아닌,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가 중첩된 시제를 경험하게 된다.



권영환, 《Untitled: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설치 전경, 갤러리 프로젝트 케이, 서울, 2023



전형배와 금지수, 〈동지〉, 2026 (컨셉 이미지). Courtesy of the artists

5층에서는 일상적 재료인 데오도란트를 공간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권영환**의 신작 〈화이트 노이즈〉(2026)가 후각을 찌른다. 통창이 있는 꼭대기층이라는 점 때문에 외부환경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다른 층들과는 가장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 층에서 작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깨끗함을 선보인다. 공간에서는 깨끗함을 연상시키는 데오도란트의 향이 풍기지만, 이는 사람의 실제 흔적을 가리기보다는 누군가의 조작된 체취를 모방한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가 제거되어버린 채 인공 향기만을 간직한 방은 더 이상 체류를 위한 장소로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머무르지 않고 ‘일시 정지’된 공의 상태로 부유한다.

지상층에 위치한 작업들이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찾기’와 ‘발견하기’를 풀어내는 반면, 지하 1층에 위치한 **전형배와 금지수(b. 1996, b. 1996)**의 〈동지〉(2026)는 대회의실로 이용되던 공간의 조명을 일괄 소등한 채 오롯이 청각에 의지하여 감상할 수 있는 사운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소리’라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일종의 ‘진동’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그 진동이 발화하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했던 둘은 도심 속에서 공간의 주인과 용도가 바뀔 때마다 남겨지는 구조물들이 지닌 개별의 형태와 밀도에 집중하여 이들의 물리적 성질을 반영하는 사운드를 라이브로 송출한다. 관람객들은 지하 1층의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도를 거닐며 이러한 잔해물들이 내뿜는 본질적인 소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작가 소개

권영환

권영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예술사를 졸업하고, 이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에서 토마스 렌트마이스터(Thomas Rentmeister)를 사사했다. 오랜 기간 비가시적인 존재들과 세상의 주변부에 남겨진 잔여물들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작업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든다’기보다 다양한 요소(영상, 사물, 잔해물 등)를 조합하여 특정한 ‘상태’를 구현한다. 작가는 개인전 《Sample》(갤러리프로젝트케이, 서울, 2024)와 《NO-PATH》(래빗앤티타이거 갤러리, 서울, 2022)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간의 교차점: 흐르는 것과 머무는 것 사이》(챔버, 서울, 2025), 《Off the Course》(쿤스트파르크 HB55, 베를린, 독일), 《Tight Intersection》(갤러리오브더웨스트, 브레멘, 독일) 등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배윤재(b. 2001)

배윤재는 도시 공간에서 감각이 물질과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방식에 주목하며, 시각이 가진 매개된 지각 구조에 기반하여 시각적 경험이 촉각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을 탐구한다. 개인전 《Impulse》(TYA갤러리, 서울, 2025)와 《Blow Out: 잠재적 경계(Potential Boundaries)》(청년베프, 서울, 2024)를 개최하였으며, 단체전 《Noise Return: 적외의 물질》(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25), 《WITNESS X》(쿨투르팔라스트웨딩, 베를린, 2025) 등에 참여하였다.

손배영(b. 1989)

손배영은 기능과 상태, 그것을 둘러싼 구조와 경계가 어긋나는 지점에 관한 질문을 사진, 영상, 설치, 조각을 통해 탐구해왔다. 최근에는 도시 안에서 발견되는 임시적인 존재와 상태를 수집하며, 그것들이 주변 환경과 맺는 관계, 그리고 특정한 조건 속에서 유지되는 방식을 살핀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개인전 《프로-포즈》(SAGA, 서울, 2022)와 《FREE PRACTICE》(로이갤러리, 서울, 2025), 《물상연마》(케이스서울, 서울, 2023), 《#생존신고》(수창청춘맨손, 대구, 2020), 《골목 유랑기》(공주시 제민천1길 53-2, 2018), 《한입-만行》(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이연진(b. 1994)

이연진은 회화를 지지와 표면, 긴장과 결합의 관계로 구축된 물리적 구조로 바라본다. 이러한 기저 구조를 외부 조건에 따라 변형하고 재구성하며 회화의 다양한 존재 방식을 시도한다. 작가는 《툼-툼-툼》(스튜디오갤러리, 2025), 《검은 하얀 바닥》(청년예술청, 2022), 《내가 그리는 꽃》(WWWspace, 2022)에서 개인전과 프로젝트를 개최했으며, 《What Happens In Between》(케이스서울, 2026), 《지면의 모퉁이 도판의 주변》(아트포랩, 2025), 《기억의 총량》(다이프 서울, 202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형배와 금지수(b. 1996, b. 1996)

전형배와 금지수는 현대 도시의 생태계에서 잔여 물질과 소리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도시가 변화해 가는 시간 속에서 남겨진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생성되어 잔해로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둘은 동시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주하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남겨진 공간들이 소리와 빛으로 반응하는 형태성을 목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홍다린(b. 2002)

홍다린은 설치와 영상을 기반으로, 사회가 말하는 '정상성'과 그 경계에 질문을 던진다. 개인을 정답과 기준에 따라 하나의 '점'으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연결'의 개념인 '선'으로 확장한다. 이는 점과 점 사이의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상태,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어떠한 긴장감을 나타낸다. 작가는 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학과 학사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올려다보기를 거부하여 내려오기—stigma》(WWWSPACE, 서울, 2025)를 개최하고 단체전 《무중력 인간》(스페이스 로라, 서울, 2024), 《unnecessary necessary 사람들》(안양아트센터 갤러리미담, 2024)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실 프로젝트 소개

공실 프로젝트는 이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사이의 공백 속에 잠시 멈춰선 서울 도심 곳곳의 공실을 임시 점유하며 주어진 공실의 물리적 구조와 임시적 성격을 활용해 전시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 2025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총 3회의 전시 및 행사를 주최했다. 공실 프로젝트는 지난해, 사무실로 사용되던 청담동의 한 공실에서 열린 기획전 《공실 Vacancy》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 《open cache》라는 이름의 대안적 아트페어 성격의 행사를 운영한 바 있다. 2026년 5월에는 공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로 《find and found》를 선보이며, 이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건물 6개 층 전 층을 활용한다. 동시대가 마주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미술로써 맞서고, 예술을 통한 선순환을 꿈꾸는 공실 프로젝트는 전시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도심 곳곳에 현대미술을 잠입시킨다.

취재 문의

이승민

matilda@wh-bn.com

010-6574-0706